작품 낭독회로 책과 인간의 연대감 높여간다

베르디에 출판사가 주최하는 〈책의 향연〉

장석훈 | 출판기획자 · 번역가

지난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남불 코르비에 지방의 한 마을인 라그라스에서 베르디에 출판사 주최로 〈책의 향연〉이라는 행사가 열렸다. 책을 좋아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5박 6일 동안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네명의 연극배우들이 진행하는 작품 낭독회와 참석자들이 배우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코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카페 혹은 서점 등지를 중심으로 한때 찾아보기 어려웠던 작품 낭독회가 널리 유행하고 있다. 소설가, 시인, 연극배우, 때로는 출판인들이 나와서 소설, 희곡, 시나리오 혹은 서간문들을 큰 소리로 청중에게 읽어준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런 작품 낭독회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 있는 듯하다. 도대체 이 열기의 기원은 어디일까?

요즘 프랑스에서는 책을 소리내 읽어주는 낭독회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사진은 베르디에 출판사가 주최한 〈책의 향연〉 모습.

묵독을 강요받은 프랑스 국민들

1987년 연극배우 파브리스 뤼치니가 셀린느의 작품 〈밤의 끝까지 여행을〉로 이런 류의 책읽기를 시도해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이전에 장 빌라는 '아비뇽 연극제'에서 책읽기를 무대 위에 올려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그 기원은 훨씬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에서 낭독은 오래된 '독서 형태'의 하나였다. 13세기에 수도승들은 소리내 책 읽는 것 외에는 다른 독서법을 몰랐다. 혁명기에는 글을 아는 혁명 세력들이 문맹 동지들에게 신문을 읽어주기도 했다. 그리고 19세기의 프랑스 작가들은 자신들이 쓴 작품의 문체를 다듬기 위해 소모임에서 배우에게 자신들의 작품을 소리내 읽게 했다. 이처럼 문학의 역사를 풍요롭게 만들어줬던, 소리내 책 읽는 풍습이 언제부턴가 프랑스에서 사라졌다.

1968년 프랑스에서는 '68년 5월'로 불리는 학생 혁명이 일어났다. 당시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낭독수업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아이들이 책을 이해하는 것과는 아랑곳없이 그저 소리내 읽는 것만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고 한다. 그렇잖아도 책을 읽고자 하는 의욕이 별로 없는 아이들에게 강요된 묵독의 독서법은 책을 더욱 멀리하게 만들었다. 한때 교사였던 작가 다니엘 페낙은 교실의 침묵이 아이들에게 독서 자체에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가 학교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면서 사회적으로도 책 읽는 행위를 내밀한 침묵의 세계에 묶어놓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소리내 책 읽는 즐거움을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사람들이 책을 멀리한다는 우려가 팽배한 요즘, 컴퓨터와 텔레비전과 휴대폰이 우리의 모든 오감을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소리내 책을 읽는다는 낭독회가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소리내 읽음으로써 책과의 거리감 없애

청중을 앞에 두고 책을 읽는 배우들은 그것이 보통의 연극 행위와는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고 말한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큰소리로 또박또박 문장들을 발음하는 일은, 내밀한 텍스트에 살과 뼈와 목소리를 입히는 관능적 황홀함을 배우들에게 선사한다는 것이다. 때로 책을 쓴 작가가 직접 자신들의 책을 읽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청중들은 작가의 숨결을 느끼면서 마치 창작 작업에 같이 참여하는 듯한 느낌도 갖는다. 그리고 작가들은 낭독회를 통해 자신의 책에 대한 독자들의 생생한 반응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얻을 수 있다. 가령, 크리스틴 앙고와 같은 작가는 사람들 앞에서 책을 읽는 것이 새로운 형식의 글쓰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청중들은 같이 듣는 과정에서 서로 정서적으로 어우러지는 느낌을 체험한다. 디지털 시대에 인간의 육성을 통해 책을 읽는 행위는 책을 더욱 살갑게 만들고 그런 정서를 같이 모인 사람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간적 연대감을 만들어낸다.

어쨌든 어릴 적 책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던 추억을 한 장면쯤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작품 낭독회를 통해 따뜻한 옛 추억으로 잠겨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인지 〈책의 향연〉에서는 '자정에 띄우는 편지'라는 코너로 행사의 밤을 마감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